

천산을 넘어서

길고 긴 하루가 지났다. 원래의 일정은 오늘 오후에 투루판역에서 기차를 타고 쿠차로 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차 여행은 답사에서 별 바람직하지 않다. 기차는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틀림없이 긴 터널을 타고 천산을 넘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기차에서 잠이나 잘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버스로 이동하기 위해 어제 그렇게 긴 하루를 보낸 것이다. 교하산장이라는 그럴 듯한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일찍이 천산을 향하였다.

투루판에서 빠져나가는 G312번 국도는 우리나라의 어느 고속도로 못지않게 곧게 뻗어있는 공로이다. 게다가 상행선과 하행선의 전혀 다른 도로로 보일 정도로 사이를 두고 있다. 그것이 넓은 땅을 활용하여 미리 도로 용지를 확보해 놓은 것인지 강한 바람 때문인지는 판단이 안 선다. 바람은 그 정도로 강하다. 이년 전에는 곳곳에 주행을 포기하고 서 있는 차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곧게 뻗은 길이지만 시속 90km 이상 달리지 못하였다. 강한 측풍



G312번 국도

때문이다. 30여분을 달린 후 드디어 천산 남쪽으로 넘어가는 G314번 국도에 들어섰다. 달라진 것은 앞으로 멀리 산이 보인다는 것 외에는 그저 곧게 뻗은 도로이다.

다시 30여 분을 달리니, 꽤 커 보이는 오아시스다. 투어크어순이라고 하는 현성이 있는 도시이다. 우리로 치면 군청 소재지쯤 되는 것 같다. 도시 뒤편으로 화력 발전소도 보이고 규모가 커 보인다. 그 도시 뒤로는 길고 긴 산이 가로 막고 있다. 뒤를 돌아보아도 역시 길



천산과 국도변의 바람막이용 철망

고 긴 산이 도시를 가로 막고 있다. 저게 천산이구나! 저 산을 넘어야 할 텐데. 어디를 보아도 바위로만 된 산이라 어떻게 넘을지 궁금하다. 가이드에게 물으니 이제부터는 골짜기를 따라 갈 것이라고 한다. 그 바위 산 속에도 골짜기가 있는가 보다. 주변은 황량한 고비만이 계속되고 있다. 바람이 얼마가 강한지 그 고비가 도로로 바람에 날려 오는 것을 막으려고 철망을 두르고 있다.

다시 30여분을 달리니 이제 완전히 골짜기 속이다. 도로도 가는 길과 오는 길이 달라 우리 방향의 길 뿐이다. 도로는 마른 하천을 따라 발달하였다. 학교에서 배웠던 사막에서는 와디가 주요 교통로로 활용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계곡이라 하천이 있게 마련인데 바짝 말라서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무언가를 가득 실은 트럭이 하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계곡에서 경관에 폭 빠져 있을 무렵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문자가 날아왔다. 얼른 짐을 싸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평화롭기만 한데도. 괜히 일행들 중에는 그런 문자를 받고 술렁이기도 하였다. 어떻게 그런 문자나 우루무치 사태는 머릿속에 두고 싶지 않았다. 문자가 오던 말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정상으로 가도 오후 두 세기가 되어야 점심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황홀경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기사는 귀찮아하는데 자꾸만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한쪽(가는 방향의 왼편)으로는 겹겹이 쌓인 지층의 바위산이, 다른 한 편에는 모래 언덕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 모래가 어디서 온 것인지도 궁금하였지만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숙소를 출발한 지 두 시간 반이 지난 후에 기사가 차를 세웠다. 내리고 보니 가는 길에서 가장 높은 곳인 듯하다. 해발고도가 대략 2,000m는 될 것이라고 한다. 여러 대의 트럭이 서 있는 것으로 보아 기사들끼리 알려진 휴게소인 것 같다. 언덕으로 올라보니 어디를 보아도 악지이다. 아!

이래서 badland라고 하는구나! 아무리 궁리해도 써먹을 수 없는 땅으로 보인다. 그저 지금 이대로가 가치 있으려나 어떻게 이용할 방법이 없는 땅 같다. 그래서 악지라고 하는구나 생각하였다. 낙타풀 조차도 자라기 힘들어 보인다.



교통로로 이용되는 하천



천산 계곡



천산의 악지

이후로는 거의 내리막이다. 이제 천산산맥의 큰 고비를 넘은 듯하다. 반대 방향의 차선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천산산맥은 남북 폭이 400여km에 이르며 길이가 2,000km에 이른다 한다. 천산산맥에는 북쪽의 증가리 분지와 남쪽의 타림분지를 가르며, 산봉우리 가까이에선 아직도 만년설이 남아 있다. 바로 그 만년설이 조금씩 녹으면서 주변에 하천과 오아시스로 물을 공급한다. 이제 최소한 천산의 절반은 넘은 듯하다. 지도를 보니 투루판에서 쿠얼러의 중간쯤 되는 庫米付이다. 투루판 북쪽으로도 천산산맥이 오늘 온 만큼이 있으니, 전체 천산산맥의 2/3는 넘어온 것 같다. 게다가 지도를 보면 이후는 높은 산지는 없어 보인다. 산이 아닌 곳은 황량한 사막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몽고향이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타림분지에는 몽고족이 살고 있다. 도로가에 언젠가 TV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경관이 있다. 티베트인들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능선의 고개를 넘어서면

서 울긋불긋한 천이 걸려있는 돌무더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다. 오보(oo)라고 하는 것으로 라마교의 풍습이다. 오보는 우리나라의 서낭당과 비슷한 것으로 오보는 대개 신성시되는 산 위나 호수·강가, 목지(牧地)·수렵지의 경계가 되는 산·강·고개·길 등과 라마교 사원의 경내 등에 만들어진다. 행인들이 그 옆을 통과할 때 뭉가를 바치기도 하여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는 이정표나 경계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곳에선 경찰도 켈과 같은 모양의 집을 짓고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가까이에 화석(和碩)이라는 오아시스가 있다. 중국에서는 오아시스를 녹주(綠州) 즉, 푸른 고을이라고 표현한다. 잘 어울리는 말인 듯하다. 화석이라 오아시스를 지나면서 보니, 이제는 경사길이 없다. 평평한 길을 천산의 기슭을 따라서 달린다. 왼편으로는 작은 분지에 물이 고인 보스텡(博斯騰)호수이고 오른편으로는 천산줄기가 이어진다. 호수를 끼고 있으니 경관도 확연히 다르다. 곳곳에 푸른색이 보이고, 습지도 보인다. 물이 얼마나 경관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보스텡(博斯騰) 호수는 중국 최대의 담수호로 면적은 1,400km²에 달한다. 호수는 해발 1,048m이며 평균 수심은 8m이다. 2007년에 내륙어항 건설을



몽고족의 문화(oo)



켈 모양을 본 딴 경찰 사무실과 숙소



화석 주변의 사막

시작할 정도로 붕어나 새우, 진주조개, 농어 등이 풍부하다. 여름에는 신장 지역의 피서지로 금사탄(金沙灘) 해수욕장은 내륙의 피서지로 유명하다. 오후 두시로 접어들 무렵 다시 작은 고개를 넘어간다. 분지를 벗어나려니 당연히 고개가 있을 수 밖에. 이 고개만 넘어서면 점심을 하게 될 쿠얼러이다.

쿠얼러는 큰 도시이다. 어느 책에 보니 인구 30만이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도시를 쿠얼러 강을 건너 막 도시로 들어서니 아니나다를까 수 많은 군인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이 도시는 몽고족 자치주의 주도이다. 도시 한 복판 높은 빌딩을 보니 신장위글몽고자치주공안국이라는 황금색 간판이 몽고글자로 보이는 것과 나란히 걸려 있다. 도시 바로 이웃은 천산기슭이다. 도시는 한창 개발 중인지 곳곳이 공사 현장이다. 쿠얼러 또는 쿠를라(库尔勒)는 바이귀령 몽골 자치주의 주도로 중국에서 가장 큰 주이다. 옛날부터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로 번창했었지만, 최근에는 타림 유전이 개발되면서 유전개발의 기지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대량으로 유입된 한족이 70%를 차지한다. 쿠얼러에서는 점심을 하는 것으로 끝이다. 점심을 마치고 일어서니 벌써 오후 4시에 가까워졌다. 쿠얼러에도 철문관(鐵門關, 티에먼관), 보스팅호 등 볼거리가 꽤 되지만, 아쉬움으로 남기고 우리는 부지런히 쿠차로 가야 한다.

쿠얼러에서 쿠차로 가는 길은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다. 도로변은 거의 녹색이다. 물론 곳곳에서 황사도 날린다. 한 시간 반쯤을 달렸을 무렵에는 마치 멀리에 소나기라도



몽골 자치주 공안국(쿠얼러)



살구 건조

쏟아지듯 시정이 좋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황사였다. 이제 앞날을 예감하는 듯하다. 타림분지에서는 늘 황사를 볼 수 있는 모양이다. 마을에도 온통 먼지투성이다. 이날은 이후 파란 하늘은 볼 수 없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살구를 말리고 있었다. 쿠얼러와 쿠차 주변은 살구 산지로 유명하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었던 이야기로는 먼지를 많이 먹었을 때 살구씨를 먹으면 목에 좋다고 한다. 가는 길에 들렀던 마을의 집 안에는 대부분 말린 살구가 가득 차 있었다. 어떤 동



가옥의 천정

네는 온통 노란색 물결이었다. 뜻하지 않는 빗방울이 몇 개 떨어졌다. 다 말린 살구가 걱정스러웠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어린 아이가 나와서 짚을 격자모양으로 짠 덮개를 덮는 것으로 났다. 후에 보니 지붕이 그런 덮개로 덮여 있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니 그런 것이면 지붕으로도 충분한 모양이다.

마을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가이드의 염려와 달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불렀다. 마음껏 사진을 찍고 가라는 것이다. 마침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녁을 위한 낭을 만드는 것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내가 하는 한국말을 대충 알아듣는 것 같았다. 가이드의 말로는 한국 드라마를 보아서 그럴 수 있단다. 마을을 떠나려는데 자동차가 문제를 일으킨다. 나는 88년에 엑셀포니라는 차를 탄 적이 있는데 겨울철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밀면서 시동을 걸었던 적이 있다. 21세기에 시동을 걸기 위하여 버스를 밀어야 하다니!

마을 가운데로 관개수로가 흐르고 있는 룬타이(輪台)는 마을 전체가 저녁을 준비하는 시장과 다름없었다. 그 중 한 거리를 들렀다. 낭을 굽는 가게가 많기도 하고 북적거렸다. 우연히 들른 이발소는 우리나라 6, 70년대에 보았던 것과 너무도 비슷하다. 벽에는 빛바랜 유명 연예인 얼굴이 잔뜩 걸려있는 것도 그렇다. 다만 수염을 조심스레 단장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보였다. 한 골목에서는 아이들까지 당구에 열심이

다. 수많은 당구대를 보니 이 동네에서도 꽤나 즐기는 것 같다. 벌써 시간이 저녁 7시에 가까워 오고 있다. 룬타이는 타클라마칸을 종단하는 사막공로가 시작되는 도시이다. 여기서 민풍까지 약 500km의 사막 종단이 시작된다.

쿠차는 위구르족이 많이 사는 듯하다. 쿠차 시내를 들어서는 도로를 공안이 차단하고 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길을 막고 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인 후에야 검문소를 통과하였다. 그 넓은 대로에 자동차를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길을 저렇게 막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저녁 9시 반을 넘겨서 숙소에 도착하였다.



저녁(낭)을 준비하는 아주머니



룬타이의 이발소



룬타이의 아이들